

남북교류 빚장 열리나

자승 스님 방북, 남북정상회담 고위 접촉에 일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나흘간의 평양 방문 결과물은 객색된 남북관계를 녹이기에 충분했다. 스님의 이번 평양 방문을 두고 전문가들은 민간차원 교류 활성화 뿐만 아니라 논의 중인 남북정상회담의 신호탄 격으로 정부 당국의 고위급 접촉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심상진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논의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제공=조계종 총무원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

남북 합의사항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이다. 서울 도선사 108순례단(단장 해자)이 3월 중 5000여 명 규모의 성지순례단을 이끌고 방북하면 2008년 총격사건으로 금강산 육로 관광이 막힌 지 3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금강산 신계사는 1951년 한국전쟁 중 폭격으로 소실된 것을 2001년 조계종과 조선불교도련맹이 함께 2007년 복원을 마쳐 이번 남북교류에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조계종은 신계사에 납축 스님을 상주시켜 통일불사의 교두보로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남북한 공동 북한 문화재 복원

북한 성보문화재 및 사찰 복원을 위해 남북 불교계가 힘을 합친다. 북한 문화재 복원불사는 양측 불교계가 각 정부의 허가를 받아 신계사 복원 불사를 모델로 국보급 사찰 및 문화재 복원에 나서게 된다.

#부처님오신날 남북 공동법회

부처님오신날에는 평양 광법사 또는 묘향산 보현사에서 남북불교도 합동·동시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다. 이번 평양 합동법회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가 추진하던 사업으로 북측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만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불교회관 건립

남북 불교계가 뜻을 모아 건립할 평양 불교회관은 완공 후 북한 내 남북교류 본부도 활용된다. 조계종은 평양 불교회관을 통해 종단 차원의 의뢰지원 등도 펼칠 예정이다.

#<고려대장경> 인경본 南 전시

2011년 대장경 1000년 축전에서 2011년 대장경 1000년 축전에서 고려대장경 인경본 전시가 추진돼 민족문화유산 홍보에 남북이 공동으로 나서

게 된다. 축전 기간 중에는 북측 불교대표단의 답방 또한 기대되는 부분이다.

#국제무대에서 한목소리 내기로

남북 불교계가 세계불교대회(WFB) 등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의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이번 남북 합의로 해외약탈 문화재 환수 등과 관련한 남북 공조의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남북이 공동성명서 등을 내 준다면 반출된 우리 문화재 반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부(사회부장 혜경)도

한편, 조계종은 '6·15공동선언 10주년인 올해 금강산 신계사 합동법회 등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합의에서 포함시키지는 않았다'고 밝혀 합의서 이면에서 진행 중인 남북 공동 사업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nia.com

“고불암 문제 정식 입건 조사”

조계종 해인사에 실무진 합동조사팀 파견

조계종이 해인사 골프장 건립, 합천군의 토지 강제 수용과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 강제 경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불교단체연석회의가 1월 29일 제기한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립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남골당) 등에 대한 질의서에 2월 5일 공문을 통해 답변했다.

호법부장 덕문 스님 명의의 답변서에서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 강제경매 사실에 대해 1월 14일 해인사에 보고를 요청해 현재 보고서를 검토 중이다. 강제경매 신청권자인 명신건설로부터도 2월 1일 진정서가 접수돼 고불암 건을 정식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법부는 “무량수전 강제경매 건에 대한 중립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와 별도로 관련부서와 협력해 강제 경매에 따른 삼보정재 유실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부(사회부장 혜경)도

공문을 통해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사회부는 “조계종 환경위에서 빠른 시일 내 해인사를 방문해 주지 스님을 면담할 계획”이라며 “환경위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및 공람에 관한 중단 입장을 전달하고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과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식 답변과 별도로 총무원은 감사국·재무부·호법부 등 실무진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해인사에 파견해 사안을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중회도 2월 10일 총무·호법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중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조계종 재무부(재무부장 상운)는 8일 불교단체연석회의에 별도의 답변을 발송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스님 폭행 은폐의혹 도마에

MBC PD수첩, 경찰 진상조사 발표 촉구

경찰청의 유감 표명과 당사자 지원 스님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 표명 속에 경찰의 축소·은폐 조사 의혹이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MBC 'PD수첩'은 2월 2일 방송에서 “사건발생 2주가 넘게 공식발표가 이뤄지지 않는 동안 일방적 폭행이라는 스님의 주장이 쌍방 폭행으로 왜곡 됐다”고 소개하고, 경찰의 진상조사 발표를 촉구했다.

지관 스님은 이날 방송을 통해 “경찰은 1월 19일 김포경찰서 조사 당시 쌍방폭행으로 몰아갔다. 수사과정에서 조사내용이 진실 내용과 달라 수정을 요청했지만 받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피의자가 조사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수정하고 이를 명시하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위반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청정승가대중결사 등 34개 불교단체들로 구성된 '지관 스님 폭행사건 대책위원회'는 2월 1일 경찰청을 찾아 △진상조사 및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 △경찰청장 사과 △권위주의 통치 행태 전환 등을 요구하는 항의문서를 전달했다.

이날 모강인 경찰차장은 불교계 요구를 수용하며 진상조사를 비롯해 관련자 처벌, 경승예우교육 등 근본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일 경찰청 이송구 정보국장 등 경찰청 간부들의 사과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해당 경찰관들도 가장으로서 각각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사태의 수습을 언급했다. 강화력 경찰청장은 9일 신년인사차 총무원을 예방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민간교류단체들 현안 공동대응해야”

종단합 5일 '남북불교교류' 워크숍

남북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교단체 워크숍이 최초로 열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남북한 경제분석과 불교교류의 방향'을 주제로 교류단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불교계 남북교류단체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북한 평화협정 제기 배경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을 공유했다. 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본부 등 종단 기구의 사업계획 소개와 더불어 불교계 남북교류단체와 일반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활동키로 결의했다.

사무총장 흥과 스님은 인사말

에서 “남북 해빙 국면을 맞이 위해서는 민간교류단체들이 현안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 조계종 사회부,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 좋은벗들, 중앙산도회, 불교인권위원회, 부산참여불교운동본부 등 불교계 남북교류 제종단 및 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Shop. 사진은 중정. 후원기 145,000. 02)2004-8216



서구 불교 호감도 상승·국내 하락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은 미국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선호도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미국인 중 58%가 불교에 호감을 갖고 있었다. 미국인 53%가 이슬람교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사는 미국인의 상당수인 91%가 개신교를, 71%가 유대교에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고도 밝혀, 아직까지는 불교가 미국 사회에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네덜란드 영자신문(NIS News

Bulletin)도 지난해 “불자 증가 추세가 이슬람교에 월등히 앞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NIS는 “인구 1600만 명인 네덜란드에서 25만 백인이 불교에 강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며 “순수 네덜란드인 4000명과 아시아 이민자 중 불자를 합해 1만6000명이었던 1998년의 조사결과에 비교해 불교가 늘어난 양적 팽창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문명국인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불교의 입지가 굳혀지고 있

다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에서의 불교는 어떻게?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김동호)이 2009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 신뢰·호감도 조사에서 불교는 3위였다. 가톨릭(35.2%), 개신교(26.1%)에 뒤처진 것도 문제지만 22% 밖에 되지 않는 낮은 호감도도 문제였다. 특히 2008년 실시한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것과는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국민의 불교 호감

도 하락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교의 봉사 및 구제활동 등 사회참여도가 이웃종교보다 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불교가 서구에서 선전하는 것은 물질만능주의에 찌든 서구인들이 불교 본연의 법향에 흠뻑 젖어 있다는 진작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국내의 이미지 실추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우리 모두 방법은 안다. 이제는 실천할 때이다.

이어나는 기자 bohyung@buddhania.com

국내 최대 규모 영산재 봉행

영산재보존회 3월 11일 서울 체조경기장서

태고종(총무원장 인공)과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회장 일운)는 영산재(靈山齋)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국가안녕·불교발전과 태고종단의 대화합을 기원하는 ‘2010 영산재’를 봉행한다.

3월 11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2010 영산재’는 108명의 여산단과 2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영산재법회로 봉행될 예정이다.

2010영산재봉행위원회(위원장 인공)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개회를 위한 중요한 행사인 만큼 영산재의 문화적 예술성을 강조해 보다 많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고종은 이번 영산재법회 중 전국신도대회 취입법회도 함께 봉행해 전국신도회 조직 정비 및 종단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태고종은 영산재 봉행 대법회 이후에도 영산재 상설공연관 건립을 추

진하는 한편, 해외공연 확대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확대 지정을 추진하는 등 영산재 보급에 힘을 쏟는다.

노덕현 기자

#영산재는...

부처님이 인도 영취산에서 여러 중생에게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 장엄의식이다. 국가의 큰 행사 등에도 봉행되는 영산재는 불교음악인 범패에 바리춤 나비춤 법고춤 등 무용과 불보살도와 감로탱화 등 미술적 요소가 가미돼 불교 예술의 백미로 꼽힌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재는 매년 서울 봉원사(奉元寺)에서 시연되고 있다.



모델: 前 세계 "미세스퀸". (촬영: 방필석 법사)

★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니 ★

신생아 작명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자식이 효도하면 아버지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썩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1년 작명 국가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5577, 739-8259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역)
한국민속철학연구소 소장 방필석법사

주역 개인지도

운명을 바꾸는 아호, 개명

방필석 대외활동

-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3회
-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회
- 제 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 20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9회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승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 現 서울 보명사 주역강의 강사
- 前 세계불교도 우의회 홍보차장
- 現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耕當問奴(경당문노)라
농사일은 마땅히 농부에게 물어보고
작명은 마땅히 작명가에게 물어보고
일이 잘 안풀릴때 개명 하십시오.
그래서 옛부터 작명을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是 必無濟人之이요
-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개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명할 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改名은 必無改名之時라